

## 의정활동 '성과'... 지역현안 해결 '미흡'

광주·전남 19대 의원 평가  
법안 발의 건수 대폭 늘고  
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높아  
車 100만대·임 행정곡 등  
정치력 한계에 지지부진

제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오는 30일 부터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19대 국회는 정부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을 지키고 여야 사이에 불협사운 몸싸움 등은 사라졌음에도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된다. 역대 최저 법안 가결률 속에 여당의 리더십 부재와 청와대 거수기 전략, 야당의 발목잡기가 이어지면서 식물국회의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기가 끝난 광주·전남 지역 19대 국회의원들도 의정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의정활동 활발 = 19대 광주 국회의원은 평균 38건, 전남 의원은 68건의 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지역 현역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광주 의원들은 모두 380건, 전남은 953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광주·전남 의석수는 각각 8석·11석이지만 재·보궐 선거 등 사유로 물러난 의원까지 포함하면 10명·14명이었다. 이를 적용해 평균하면 광주는 1인당 38건, 전남은 68건을 발의했다. 18대 국회의 1인당 입법발의 건수가 1인당 평균 32.5건인 점을 고려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발의된 법률안이 실제 공포된 경우는 광주 15건(발의 대비 3.9%), 전남 81건(10.4%)에 그쳤다.

상임위 출석률과 본회의 출석률은 대다수 의원들이 80%~90%를 넘었다.

◇지역 현안 해결은 '아쉬움' = 그나마 지난 4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통과시킨 것을 꼽을 수 있다.

20대 총선에서 아슬게 좌절된 더불어민주당 박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박근혜 정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훼손 시도에 맞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기관화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



“일자리 주세요” 2016 광주권 일자리박람회가 26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 일자리 박람회에는 한국알프스(주), ㈜호원 등 219개 지역기업이 참가했으며 800여 명이 현장 면접을 치렀다.

### 19대 국회 광주·전남 의원들 지역현안 해결 평가

#### ◇잘한 점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통과
- 광주해운대대학 성공개최 협력
-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예산 반영

#### ◇미흡한 점

- 임 행정곡 5·18기념곡 지정 불발
- 광양항 '투포트' 위상 하락
- 자동차 100만대 도시 조성 지지부진

화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도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국제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주도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위한 예산 반영도 괄목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사업의 물꼬를 60여년만에 댔기 때문이다.

반면, 아쉬운 점도 많았다. 우선 임을 위한 행정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불

발은 이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결론적으로 지역 정치권의 한계를 절감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 투포트 항만으로서 기능과 위상이 사라진 광양항 문제도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광양항 무시는 19대 국회까지 이어졌으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거의 두손을 놓았다. 광주역과 송정역 통합에 따른 대책 부족도 정치권의 무능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지역 국회의원들 간 소지역주의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도 정치권의 노력은 있었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만큼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의과대학과 부속 대학병원 유치는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분열 속 통일된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면세점 유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송정~목포)건설, 남해안철도(목포~보성)건설 등 지역 사업들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흥재의 세상만사 ▶ 2면

新팔도유람-대전 계족산 향토티 ▶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유령인구'가 5000명?

아파트·오피스텔 거주하면서  
자녀교육 위해 주민등록 안해  
실제 거주인구 2만명 넘는 듯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 내 소위 '유령인구'가 5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령인구는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을 말한다. 이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면서 혁신도시 내 아파트 등의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전남도와 나주 빛가람동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만5303명으로, 지난 2015년 9월 15일 1만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도시로 인해 나주시 전체 인구도 최근 10만명을 회복했다.

문제는 진짜 거주인구는 2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자녀 교육문제, 단기 취업 등의 원인으로 인해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고 혁신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지인이 5000명을 넘는다는 것이다. 빛가람동에 1만200세대가 전입신고는 했는데, 거주인구는 1만5303명으로, 세대당 1.5명여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빛가람동주민자치센터가 추정하는 유령인구 수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실제로 혁신도시 내 한 오피스텔은 전체 1227세대가 모두 분양돼 주민이 입주했지만 이 가운데 449세대만 주소지 전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778세대는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유령인구인 셈이다.

혁신도시에는 모두 아파트가 1만795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만6416세대가 건축승인을 받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에너지밸리 사업 등이 궤도에 오를 경우 아파트 등의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혁신도시를 제외한 전남도내 다른 지역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2000세대 넘을 등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민간 미분양 주택은 모두 2017세대로 전달(1380세대)보다 637세대나 증가했다. 순천(-21세대), 목포·광양(-20), 여수(-17) 등 전남 주요도시는 감소했으나 나주가 715세대나 늘었다. 혁신도시의 효과를 보기 위해 나주 남평에서 최근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인근의 아파트는 혁신도시 내 물량이 모두 소화된 뒤인 3~4년 뒤를 내다보고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광주국제영화제 '국제 망신'

내부 갈등에 6월 개최 무산

25개국 500편 접수...신뢰 추락

광주국제영화제 6월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관련기사 16면〉  
광주국제영화제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당초 6월 30일부터 열기로 했던 2016 국제영화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내부 갈등 등으로 광주시 지원이 끊기고 영화진흥위원회 지원금 선정에서도 탈락,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연기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홈페이지

와 사무국도 잠정 폐쇄했다. 하지만 이미 세계 각국에서 상영작을 접수받은 상태라 영화제 신뢰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 사무국측은 올초부터 지금까지 유럽과 아시아 등 25개국에서 단편 450편, 장편 50편 등 모두 500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영화제 연기를 선언했지만 행사를 준비해왔던 스텝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영화제 조직위 해체 등 새판을 짜야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향후 영화제 존속 여부를 포함한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전·오후·자정에 떠나는 제주여행, **SEAWORLD FERRY LINE**

**산타루치노** 목포 ↔ 제주  
09:00 17:00

**씨스타크루즈** 목포 ↔ 제주  
00:30 13:40

**퀸스타2** 목포 ↔ 제주  
14:30 09:30  
(목포 ↔ 우수영 무료셔틀버스 운행)

7, 8월 휴가철 차량 및 단체 예약접수중

**해양수산부 고객만족평가 "최우수선사" 수상** | 고객이 선택한 13년 연속 제주기점 수송률 1위항로  
다양한 선박과 시간대! 어디에서나 편리한 접근성

www.seaferry.co.kr 씨월드고속훼리 검색 대표전화 1577-3567